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7장 의와 복

『산상설교』 상권 제7장, 인쇄 90~104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6

> ❓ **다들 행복하려고 사는데, 왜 예수님은 행복이 아니라 '의'에 배고파하라고 하실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전쟁의 위협 아래 불안한 세상에서 출발한다. 그는 세상이 행복을 직접 좇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놓친다고 진단한다. 이 복은 앞의 세 복(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이 드러낸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국가 간 도덕도 아니고 칭의만도 아니다. 죄와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전체다. 그런 의에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 주신다. 칭의는 즉시 주시고, 성화는 평생 이어 가시며, 마지막 날에 완성하신다. 그리고 채워질수록 더 굶주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데서 설교가 끝난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 세상의 불행과 이 복의 자리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삶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설교를 시작한다. 복음의 관점에서 인류의 불행은 겉으로 드러난 특정한 죄가 아니라 죄 자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전쟁과 원자력의 위협을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모든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을 아는 데 있다. 복음은 멀고 간접적인 해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다. 그는 당시 교회가 단순한 복음을

진단하게 했다면, 이 복은 해결책으로 방향을 튼다. 이 복은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복음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다.

1. 불행의 뿌리는 개별 죄가 아니라 죄 자체다
2. 복음은 세상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다
3. 교회가 막연한 평화 담론에 머무는 것은 비극이다
4. 앞 세 복은 진단이고, 이 복은 해결의 시작이다
5.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교리를 담고 있다

> **마태복음 5:6**
> 설교 본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잠언 14:34**
> 나라를 높이는 것은 의라는 원리
>
>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 **마태복음 5:3**
> 이 복의 출발점인 심령의 가난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태복음 5:4**
> 죄를 슬퍼하는 애통
>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마태복음 5:5**
> 자아에서 벗어난 온유
>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2. 행복이 아니라 의를 구하라

온 세상은 행복을 원한다. 모든 행동과 야심과 노력 뒤에는 행복이라는 동기가 있다. 그런데도 세상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이나 행복 자체에 굶주려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행복은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곧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의사 예화를 든다. 원인은 찾지 않고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는 의사는 서투를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세상이 영화관이나 술로 고통을 잊으려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다. 같은 오류가 교회 안에도 있다. 기쁨과 황홀감을 주는 체험을 찾아 이 집회 저 집회를 돌아다니지만 끝내 얻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의다.

1. 행복은 직접 좇으면 달아난다
2.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따라온다
3. 통증만 없애는 진통제식 처방은 위험하다
4. 교회 안에도 체험 사냥이라는 같은 오류가 있다
5. 체험은 선물이고, 구할 것은 의다

> **마태복음 5:6**
> 굶주릴 대상은 행복이 아니라 의라는 부정 명제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이 의가 아닌 것: 국가 간 도덕, 칭의만의 의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의가 무엇이 아닌지를 밝힌다. 첫째, 이 의는 당시 많이

철학자들이 가르친 수준의 도덕이고, 복음의 의는 그보다 훨씬 깊다. 그는 국가들이 조약을 깨는 일에는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 결혼 서약에는 불충실한 사람들을 예로 든다. 둘째, 더 중요한 점으로 이 의를 칭의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 로마서처럼 '의'가 칭의를 뜻하는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본문은 앞의 세 복과 맞물려 있으므로 칭의와 함께 성화까지 포함한다. 결국 의에 대한 굶주림은 모든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갈망이다.

1. 국가 간 도덕은 헬라 철학 수준의 의다
2. 공적 정의를 외치며 사적 신실은 버리는 위선이 있다
3. 이 의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를 포함한다
4. 근거는 앞의 세 복과 이어지는 문맥이다
5. 의에 대한 갈망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려는 갈망이다

> **로마서 3:22**
> 의가 칭의를 뜻하는 대표적 용례
>
>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마태복음 5:3**
> 앞 복과 이어지는 문맥이 의의 범위를 넓힌다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태복음 5:4**
> 죄에 대한 애통이 해방의 갈망으로 이어진다
>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4. 의란 무엇인가: 죄와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관계가 틀어진 데서 나온다. 의에 굶주린 사람은 첫 조상이 누리던 원래의 의로운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의는 죄의 세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세상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자기도 그 세력에 끌려간다는 것을 보며, 지체 속의 다른 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더 나아가 의는 죄를 원하는 욕망 자체에서, 그리고 존재 전체를 더럽힌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기 관심, 자랑, 자기 보호, 피해의식 같은 자아의 모든 표현에서 벗어나려는 갈망이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팔복을 날마다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 정점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친절과 동정, 원수를 대하시던 모습을 닮는 것이다.

1. 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2. 죄의 세력과 죄를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 자아의 모든 표현에서 해방되려는 갈망이다
4. 긍정적으로는 성결, 곧 팔복을 사는 삶이다
5. 최고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 **에베소서 2:2**
>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옛 상태
>
>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 **고린도후서 4:4**
> 이 세상 신이 눈을 멀게 한다
>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로마서 7:23**
> 지체 속에서 끌고 가는 다른 법
>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갈라디아서 5:22

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요한일서 1:3

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5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순결하게 걷는 삶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10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최고의 욕망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 5.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 고통스러운 궁핍 의식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은 내 노력과 힘으로 의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바리새인 같은 자만과 우월감으로 이어진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로 여긴 자기 신뢰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복인 심령의 가난이 이미 모든 자기 신뢰를 부정했다. 주리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프도록 깊이 아는 것이고, 채워질

아침 구름처럼 잠깐 있다 사라진다고 꾸짖으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다. 로이드 존스는 꿈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야심가와, 떨어져 있으면 편히 쉬지 못하는 연인을 비유로 든다. 시편 42편의 사슴이 이 갈망을 가장 잘 그린다. 그는 다아비의 말도 인용한다. 그냥 배고픈 정도로는 부족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탕자도 배고플 때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1. 자기 노력으로 의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2. 심령의 가난이 모든 자기 신뢰를 부정한다
3. 주림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되는 아픈 궁핍감이다
4. 아침 구름 같은 감정과는 다르다
5. 탕자처럼 굶어 죽을 지경에서 아버지께 간다

> **빌립보서 3:8**
>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
>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마태복음 5:3**
> 자기 신뢰를 부정하는 출발점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호세아 6:4**
>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는 거짓 의
>
>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 **호세아 6:3**
>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참된 추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시편 42:1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함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누가복음 15:16~18

쥐엄 열매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선 탕자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 6. "배부를 것이다": 즉시 주어지는 칭의

로이드 존스는 이 약속을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하나로 본다. 바로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 흘러 들어온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의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은 단 하나, 내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무조건 약속하셨다. 채움은 즉시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가 용서받았음을 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토플래디의 찬송을 인용한다. 구주의 순종과 보혈이 모든 죄를 덮었으니 율법도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다.

2.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자각이다
3. 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시는 무조건적 약속이다
4.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5.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다

> **요한복음 6:37**
>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절대적 약속
>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 **로마서 6:14**
>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
>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 **로마서 3:22**
>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
>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7. 계속 채워지고, 마침내 완전해진다: 성화와 영화

칭의는 즉시 일어나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과정도 시작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과 오염에서 건져 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을 위해 계속 굶주려야 하고, 굶주리면 얻는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소원과 힘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므로 우리는 점점 죄에서 구원받는다. 공격해 오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달아난다. 약속은 마지막 날 영원 세계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날 교회는 티나

바울의 말로 설명한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고백, 그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는 권면이다. 그리스도인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주리고 목마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1. 칭의는 즉시, 성화는 평생 이어지는 과정이다
2. 성령이 소원과 힘을 주시며 일하신다
3. 마지막 날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해진다
4. 이미 완전하면서 계속 완전해져 간다
5. 채워질수록 더 굶주리는 것이 복이다

> **빌립보서 2:13**
>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로마서 8:37**
>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긴다
>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야고보서 4:7**
>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
>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에베소서 5:27**
> 티나 주름 없이 서게 될 교회
>
>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됨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빌립보서 3:12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중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린도후서 3:18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이드 존스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권면을 바울의 말로 인용하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서 6:1에 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욱 주리고 목마릅니다.”

⚖️ 오해와 반론

팔복

마태복음 5장 3~12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덟 가지 복으로 그리신 말씀이다.

의(이 본문에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고, 거룩해져 그리스도를 닮는 것 전체다.

칭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이다.

성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평생의 과정이다.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죄의 오염

죄가 행동만이 아니라 존재와 성격의 바탕까지 더럽힌 상태다.

심령의 가난·애통·온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자아를 내세우지 않는 앞의 세 복이다.

바리새주의

자기 노력으로 쌓은 의를 자랑하며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태도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세상은 행복을 직접 쫓다가 놓치지만, 의에 그주리 사람만 참으로 부딪다

- 이 의는 국가 간 도덕도, 칭의만도 아니다. 죄와 자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 주림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픈 자각이다.
- 하나님은 은혜로 즉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완전하게 하신다.
- 채워질수록 더 굶주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복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